

2022. 3월 5주 언론보도 스크랩

[정책보도] 다목적 소방헬기 수의계약 추진

KBS 춘천

2022년 03월 30일
(강원)

강원도, '초대형 소방헬기' 구매 수의 계약 추진



강원소방본부는 최근까지 두 차례 낸 '초대형 소방헬기' 구매 입찰 공고가 2인 이상 입찰이 성립 안 돼 유찰됨에 따라, 이번 입찰에 응한 미국 '시코르스키' 사를 상대로 구매 수의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는 강원소방의 초대형 소방헬기는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에 배치돼 동해안 대형산불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강규엽 basic@kbs.co.kr

[정책보도] 다목적 소방헬기 수의계약 추진

강원소방 '산불 특급 소방수' 다목적 대형헬기 수의계약 추진

동해안 대형산불 잦아 담수 용량 3천L 초대형 헬기 도입 절실



강원 소방헬기 국내외 여러 요인 탓에 수년째 발목 잡힌 강원도의 초대형 헬기 도입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소방본부는 1차 입찰(1월 15일~3월 2일)에 이어 재입찰(3월 15~25일)도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강원소방은 2018년 4월부터 산불의 효율적인 초동진화를 위해 담수 용량 3천L(리터)·이륙중량 9천kg 이상의 다목적 초대형 헬기 도입을 추진했다.

보유 중인 인명구조용 소방헬기 2대는 담수 용량이 1천500L로 적어 산불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2020년 2월 국비 115억 원과 도비 155억 원 등 총 270억 원의 도입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국산 헬기 수리온의 활용 가능성을 따져볼 것을 정부가 요구하면서 한동안 발목이 잡혔고, 올해 1월에는 러시아 헬기 제조업체가 '특정 기종에 유리한 소방헬기 입찰 공고를 중지해 달라'며 춘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허송세월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강원소방은 입찰 재공고를 냈으나 미국 시코르스키사(S-70M 기종)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에 강원소방은 2024년 헬기 도입을 목표로 재공고 응찰자인 시코르스키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최근 또다시 대형산불을 겪으며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에 다목적 소방헬기가 배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숙자 소방장비회계과장은 "강원지역 재난 유형에 적합한 헬기 규격의 적격 여부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규격 평가위원회 개최와 가격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안에 수의계약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집중.1> 강원도 첫 대형헬기, 역할은?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앵커]

강원도의 대형 소방헬기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강원도의 화재 대응 어떻게 변할지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4일 발생한 영월 산불로 산림 80헥타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은 주택의 화목난로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주택에서 난 불이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Stand-Up ▶

"산불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강원도에 대형 소방헬기가 도입되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불이 어디서 났느냐에 따라 대형 헬기 출동 여부가 결정되기때문입니다.

산림청 헬기는 산림과 가까운 주택에서 불이 나도 산림으로 불길이 번지기 전에는 출동이 어렵습니다.

강원도가 이번에 대형 헬기를 구매해 운영하면, 산림 인근 주택에서 불이나도 바로 이륙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강풍 대응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헬기는 아래에 물 바구니를 연결하는 방식이어서 강한 바람이 불면 물이 담긴 바구니가 흔들려 운항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고정 물탱크를 헬기 안에 장착한 대형 소방헬기는 강풍에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야간 진화 능력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화 I N T ▶

"기본 비행기 구비된 장비 외에 야간 추가 장비가 있는데 계기(판)이라든가 적외선 카메라 든가 야간에 볼 수 있는 장비가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대형 헬기에는 수평으로 물을 쓸 수 있는 '워터건'의 탑재도 가능해 진화인력 접근이 어려운 초고층 화재 현장에서도 긴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G1방송

2022년 03월 29일
(강원)

<집중.2> 순탄치 않았던 헬기 도입..과제는?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앵커]

이렇게 산불 초동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대형헬기의 기종이 결정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앞으로 남겨진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가 대형헬기를 도입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국산헬기 '수리온' 구매를 두고 조달청과 이견을 보였고,

러시아산 헬기 도입은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경쟁자가 사라진 대형헬기 입찰에는 미국 헬기 업체만 참여했습니다.

"강원도는 2차례나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미국 헬기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낙점된 대형헬기 기종은 미국산 '파이어호크'입니다.

군용헬기 '블랙호크'를 개조한 기종으로, 미국 현지에서 대형산불 진화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첫 도입되는 만큼, 다음달 규격 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고층건물 화재 진화에 필요한 10억 원 안팎의 직사장비 '워터건' 장착도 관건입니다.

숙련된 조종사 6명과 정비사 4명 등 전문 인력 확보도 필요합니다./

[인터뷰]

"810일이란 기간 내에, 그러니까 2024년 6월을 목표로 계약을 하고, 제작하고 검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형헬기)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2024년 대형헬기 배치 전까지 임차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대형산불로 이어진 대형헬기 부재...2024년에 나 운용 가능

신재훈

화재 초동진화 장비 중요성 강조
강원소방, 오늘까지 구매 재공고
검증·제작에만 900일 소요 전망
“도입 무산으로 피해 확산 아쉬움”



진화헬기가 산불이 난 곳에 물을 뿌리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최근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초토화시킨 대형 산불이 발생해 초동 진화 장비인 헬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강원도소방본부가 산불진화 대형헬기 도입을 재추진한다. 그러나 실제 도입시기는 3년 이후나 가능, 당분간 동해안 산불초기대응에 난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소방본부는 25일까지 '소방헬기 외자 구매' 공고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1월19일부터 3월2일까지 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원 업체가 1곳에 그쳐 이번에 재공고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에도 지원 업체가 1곳에 그치면 도소방본부는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소방당국은 현재 2019년 산불 이후 국비 115억원과 도비 155억원 등 총 27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강원도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초동 조치할 대형헬기는 1대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보유한 헬기로는 야간 진화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뿐더러 담수용량이 1500ℓ로 적어 소방당국은 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소방본부가 대형헬기 도입에 나섰지만 실제 운용까지는 시간 소요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검증 기간 90일을 거쳐야 하고 제작기간만 81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입 가능 시기는 2024년 상반기로 추산된다. 그사이 도소방본부는 헬기를 임차해 3000ℓ급 대형 헬기를 사용할 방침이다.

도소방본부가 산불진화용 헬기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9년 고성지역을 불바다로 만든 산불로 인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수차례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를 찾아가 건의했지만 무산됐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관계자는 “이번 동해안 산불에서도 대형헬기를 이용해 빠르게 산불을 잡았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며 “최대한 대형헬기를 빨리 도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ericjh@kado.net

G1방송

2022년 03월 30일
(강원)

강원도 소방본부, 강원도형 화재진압전술 개발 착수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G1 도 소방본부, 강원도형 화재진압전술 개발 착수

강원도소방본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화재진압전술 개발에 들어갑니다.

도 소방본부는 이같은 전술 개발을 위해 자문위원과 개발연구팀 등 15명으로 TF팀을 꾸려, 화재 유형별 대응절차와 전술 작전 매뉴얼 개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원 소방, 지역 맞춤형 화재 진압 전술 개발

소방 당국이 강원도 맞춤형

화재 진압 전술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 전담조직을 운영합니다.

강원소방본부는

개발 연구팀과 자문위원 등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전담조직을 꾸리고

올해 6월까지 '강원도형 화재진압전술'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출동 단계별 주요 임무와

화재 유형별 진압전술, 임무별 안전점검 목록을

중점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승연

최근 3년 강원 농기계 사고 822건 발생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농기계 사고가 8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2021년)까지 강원도에선 농기계 사고가 822건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71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농기계는 경운기가 43%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와 예초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상자 연령대는 60대와 70대가 52%로 고령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김태희

G1방송

2022년 03월 25일
(강원)

강원도 소방본부, 봄철 농기계 사고 주의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강원도 소방본부는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농기계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도내 농업기계 안전사고는 모두 822건으로 이 가운데, 봄철이 226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농기계 사고가 중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江原日報

2022년 03월 28일
04면 (사회)

봄철 농기계 안전예고제 발령

강원도소방본부는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봄철을 맞아 '봄철 농기계 119안전예고제'를 발령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822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715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을 수확철(8~10월)에 312건(37%)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봄철 영농기(3~5월)가 226건(27%)으로 뒤를 이었다.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농기계 안전사고의 원인별 현황은 낙상·추락 161건(20%), 끼임·깔림 146건(18%), 교통사고 142건(17%) 순이었다. 기계별로는 경운기가 354건(43%)으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 222건(27%), 예초기 134건(16%)이 뒤를 이었다.

농기계 사고의 경우 특히 음주운전, 안전수칙 불이행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경운기를 운행할 때에는 좁은 농로, 경사진 길 등에서는 감속 운행하고, 내리막길에서는 클러치 조작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업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안전벨트 등 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할 것을 권했다. **권순찬기자**

(5.7*18.0)cm

강원소방, 봄철 농기계 119안전 예고제 발령



트랙터 안전사고(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봄철 농기계 119안전예고제'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822건이 발생해 725명(사망 10명·부상 7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농업기계 안전사고는 영농을 시작하는 봄철(226건·27%)과 가을 수확철(312건·37%)에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인별로는 낙상·추락이 161건(2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끼임·갈림 146건(18%), 교통사고 142건(17%), 베임·절단 122건(15%), 전도·전복 81건(10%), 기타 170건 등의 순이었다.

농업기계별로는 경운기가 354건(43%), 트랙터 222건(27%), 예초기 134건(16%)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 연령대별로는 60대·70대가 429건(52%)으로,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고의 주요원인으로는 안전수칙 불이행, 음주운전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강원소방은 봄철 농기계 119안전예고제를 발령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5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5대 안전수칙은 △음주운전 절대 금지 △농기계 등화장치(반사판) 설치 △안전벨트·보호안경 등 보호장구 착용 철저 △농기계에는 가급적 한사람만 탑승 △작업 전·후 안전점검 생활화 등이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대다수의 농기계 사고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사고예방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정책보도]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KBS 춘천

2022년 03월 29일
(강원)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열려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가 강원도 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원주소방서 등 강원 소방서들은 오늘(29일)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의용소방대의 노고와 봉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매년 3월 19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해졌지만, 올해는 산불 상황 등을 감안해 열흘 연기됐습니다.

이현기 goldman@kbs.co.kr

江原日報

3년간 소방활동 방해범죄 징역형 처벌 ‘단 3건’

욕설·폭행 등 매년 발생... 대다수 벌금형에 그쳐

119구급대원들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방해사범들이 징역형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방활동 방해건수는 모두 23건이었다. 구급대원 폭행 18건, 진입대원 폭행 2건, 구급차 출동방해 2건, 소방용수 무단 사용 1건 등이다. 올해도 1월 태백에서 부상을 입은 주취자가 구급차 내부에서 난동을 부리며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 방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방해사범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2건, 집행유예 1건 등 총 3건에 그쳤다. 전체의 61%인 14건이 벌금형이었다.

방해사범의 대다수는 주취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과 지난해 있었던 14건의 소방활동 방해 중 12건이 주취자에 의한 방해활동이었다. 주취자 범죄가 많은 만큼 올 1월

20일 시행된 개정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소방본부는 역시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 1월2일부터 소방사범탐을 발족했으며 웨어러블캠, CCTV, 자동신고장치 등 폭행 대응장비도 지속적으로 보강 중이다.

박순걸 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찬기자

(17.5*10.5)cm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강릉 선교장서 산불 진화훈련



(강릉=연합뉴스) 강원도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대원들이 30일 강릉 선교장에서 산불 진화훈련을 하고 있다. 2022.3.30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매일경제

2022년 03월 31일
(정치)

강원소방, 대형산불 위험기간 소방차 영동에 추가 배치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강릉 선교장서 산불 진화훈련
강원도소방본부는 동해안 대형산불 위험 고조 기간인 4월 1~13일 영서 지역 소방차 24대를 영동지역으로 이동 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4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는 평년과 비슷하지만, 동해안 지형 특성상 단시간에 급격히 건조해지거나 농번기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실화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강원소방은 2000년대 들어 발생한 대형산불 22건 중 절반이 4월 초중순에 발생한 만큼 소방력을 영동에 보강해 대응력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이동 배치한 소방차는 건조특보가 내려지면 산림과 인접한 문화재·사찰·민가 주변에 미리 물을 뿌리고, 산불취약지역을 순찰하는 임무를 맡는다.

강원소방은 특히 내달 4~7일을 청명·한식 대비 특별경계 근무에 돌입해 화재 예방에 주력한다.

박순걸 방호구조과장은 "도민들께서도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자제하는 등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책보도] 대형산불 위험기간 소방차량 이동배치

KBS 춘천

2022년 04월 01일
(강원)

강원소방, 영서지역 소방차 24대 동해안 이동 배치



동해안 대형산불 위험 고조 기간에 강원 영서 지역 소방차가 동해안 지역으로 이동 배치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늘(1일)부터 이달(4월) 13일까지 춘천과 원주 등 영서 지역 소방차 24대를 동해안 6개 시·군에 이동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지역 산불대응 소방차는 기존 62대에서 86대로 늘어납니다.

최근 20년 동안 강원 동해안 대형산불 22건 가운데 11건이 4월 1일부터 13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청초

[정책보도] 도내 524가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G1방송

2022년 04월 01일
(강원)

도소방본부, 도내 524가구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강원도소방본부가 도내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524가구를 선정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는 대형산불이 반복되는 동해안 6개 시·군의 화재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됐습니다.